



2021년 1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2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. 11.(월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규성 과장(044-203-4080)	담당자	장원 사무관(044-203-4081)

##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21. 1. 11.(화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(INSC)와 외국인직접 투자연구센터, 코트라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
-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12월 31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
-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 발표되며, 2021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'21년 4월 발표 예정

#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

-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, 신고기준 “6년연속 200억불” 달성 -
- 바이오·친환경차·온라인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84.2억불로 9.3% 증가 -

## I. 종합

- (실적) '20년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11.1% 감소한 207.5억불, 도착기준은 17% 감소한 110.9억불을 기록

【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(단위:억불, %) 】

구 분	신고 기준			도착 기준		
	'19년	'20년	증감	'19년	'20년	증감
상반기	98.7	<b>76.6</b>	△22.4	61.9	<b>49.3</b>	△20.3
하반기	134.6	<b>130.9</b>	△ 2.8	71.7	<b>61.6</b>	△14.1
합 계	233.3	<b>207.5</b>	△11.1	133.6	<b>110.9</b>	△17.0

- (평가) '20년 FDI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,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진입하며 '15년 이후 “6년 연속 200억불 달성”
  -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되면서 상반기 FDI는 크게 감소하였으나, K-방역 뿐만 아니라 화상상담·웨비나 등 온라인 IR,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유치노력 등을 통해 하반기 감소폭을 크게 완화
    - \* (신고기준, 전년 대비) : 상반기(76.6억불, △22.4%) → 하반기(130.9억불, △2.8%)
  -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 및 재확산 반복으로 인해 글로벌 FDI는 크게 감소\*한 가운데 우리나라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양호
    - \* UNCTAD는 '20년 글로벌 FDI가 전년대비 30~40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, 실제 '20.상반기 글로벌 FDI는 3,990억불로 전년동기(7,770억불) 대비 49% 감소 ('20.10월)
  -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200억불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며 안전한 투자처임을 확인
- (특징) ①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분야 투자 증가, ②첨단기술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첨단 소부장 분야는 하반기 증가세로 전환, ③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 분야 투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

## 신산업

- AI·빅데이터·클라우드, 친환경차,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\*의 신고 기준 투자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\*\*
  - \* 자율주행차, 로봇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모바일, 블록체인, 핀테크, 의약, 전자상거래 등
  - \*\* (신고) 규모 : ('19) 77억불 → ('20) 84.2억불 (+9.3%) / 비중 : ('19) 33% → ('20) 40.6% (+7.6%p)  
(도착) 규모 : ('19) 51.2억불 → ('20) 49.5억불 (△3.3%) / 비중 : ('19) 38.3% → ('20) 44.6% (+6.3%p)
- 신고 기준으로 이차전지·의약 등 제조업과 전자상거래·연구개발 등 서비스업 모두 전년 대비 증가
  - \* (신고, 억불) 제조업 : ('19) 25.4 → ('20) 28.1 (+10.7%), 서비스업 : ('19) 51.6 → ('20) 56.1 (+8.6%)  
(도착, 억불) 제조업 : ('19) 10.4 → ('20) 13.0 (+25.3%), 서비스업 : ('19) 40.8 → ('20) 36.5 (△10.6%)
-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 활용분야 및 IC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 지속

## 첨단 소부장

- 반도체·이차전지·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투자가 지속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첨단 기술 국산화에 기여
- 특히, 상반기 크게 감소한 소부장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하반기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감소폭 완화
  - \* 신고(억불) : ('19) 40.9 → ('20) 38.1 (△7.0%) / 비중 : ('19) 17.2% → ('20) 18.4% (+1.2%p)  
상반기 : ('19) 20.8 → ('20) 11.7 (△43.7%) / 하반기 : ('19) 20.1 → ('20) 26.4 (+30.9%)
-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, 친환경차 전용부품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기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한 투자 신고 사례도 발생 (총 7건, 1억불)
  - \* 개정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투자자로 인정('20.8월)

## 그린뉴딜

- 신재생에너지·자원재순환 분야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 증가로 외국인투자가 친환경·저탄소 사회 전환에 일조
- 풍력·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, 수처리·자원재순환 등 녹색산업 관련 분야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
  - \* 신재생에너지 등(신고기준, 억불) : ('19) 2.4 → ('20) 4.8 (+101.4%)

## II. '20년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사례

### 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는 비대면·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 확대

- 원격교육, 재택근무 지원, 비대면 소비(전자상거래) 등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, 전자상거래 투자 지속
  -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,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등 인프라 확보형 투자도 활발

#### < 온라인 플랫폼·전자상거래 주요 투자사례 >

- ▶ (A社) 국내 유명 온·오프라인 교육서비스 기업 지분 투자 (케이만, 1억불)
- ▶ (B社) 기업용 메신저, 영상회의, PC화면 공유 등 비대면 업무 지원 (日, 0.5억불)
- ▶ (C社) 배송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IT기술 개발 (美, 1.5억불)
- ▶ (D社) 데이터센터 증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대 (美, 2억불)
- ▶ (E社) 신선식자재 콜드체인(냉장유통) 물류시스템 고도화 투자 (케이만, 1.2억불)

-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“K-방역” 성과에 기반한 의약·바이오 투자 증가
  - 특히,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투자, 마스크 소재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 등 K-방역과 연계한 투자 발생

#### < 의약·바이오 주요 투자사례 >

- ▶ (F社)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생산업체 지분 투자 (대만, 0.1억불)
- ▶ (G社) 난소암, 췌장암 등 희귀질병 항암·면역치료제 개발(캐, 1.8억불)
- ▶ (H社) 위생·의료·산업용 친환경 복합소재(스폰본드) 생산 (日, 0.1억불)

### ② 첨단 소부장·R&D 분야 투자 지속

-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 소재·부품 투자 지속
  - 특히,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·디스플레이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 다변화,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·생산을 위한 투자 활발

〈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주요 투자 사례 〉

- ▶ (I社)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·생산 (美, 0.3억불)
- ▶ (J社) 희귀금속 기반 반도체·디스플레이 특수소재 생산 (홍, 0.1억불)
- ▶ (K社) 반도체·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, 가스처리장치 등 장비 생산 (英, 1.2억불)
- ▶ (L社) 전기자동차 전용 배터리 팩 생산공장 신축 (獨, 0.6억불)
- ▶ (M社) 전기차 모터·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온도제어장치 개발·생산 (日, 0.3억불)

- 이차전지, IT, 자동차 등 첨단 연구개발·기술서비스 투자사례 증가
  - 차세대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개발을 위한 R&D센터, 사무용 기기 글로벌 기업의 전략 R&D센터 등 연구개발 분야 투자 활발

〈 연구개발 분야 주요 투자사례 〉

- ▶ (N社) 차세대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개발 R&D센터 증설 (벨, 0.3억불)
- ▶ (O社) 기업용 대형 프린터 글로벌 전략 R&D센터 건립 (네, 2.5억불)
- ▶ (P社) 자동차 전장품 등 무선통신 기자재 인증 및 검사 (獨, 0.1억불)

③ 친환경·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분야 투자 증가

- 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“그린 뉴딜” 관련 신재생에너지·녹색산업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자 유입
  - 풍력발전 단지 개발에 기존 소규모 지분 투자에서 대형화·전문화, 건물일체형 태양광, 폐기물 자원 순환 등 투자 범위도 다양화

〈 그린 뉴딜 주요 투자사례 〉

- ▶ (Q社)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단지(울산·전남 등) 건설 (프, 0.9억불)
- ▶ (R社)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건축자재 생산 (美, 0.3억불)
- ▶ (S社) 하수·폐수 처리 등 수처리, 폐기물 자원순환 사업 (캐, 2억불)

### III. 전망과 향후계획

#### 1. '21년 FDI 전망

- (글로벌 FDI) UNCTAD는 '21년 글로벌 FDI는 5~10%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, '22년 이후 회복세를 기대

**[참고]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(UNCTAD) 글로벌 FDI 전망**

▶ '20년 글로벌 FDI가 전 세계 코로나19 영향으로 '19년(1.54조불) 대비 40% 감소(1조불), '21년에도 5~10% 추가 감소하여 9천억불 이하까지 할 것으로 전망 (20.6월, WIR)

-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경기침체 장기화, 미국 신정부 출범, 영국의 브렉시트(Brexit) 현실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 기조가 당분간 유지

- (국내 FDI) 코로나19,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·외적으로 긍정 요인과 부정요인\*이 상존하여, '21년 FDI 유치도 녹록지 않을 전망

\* (긍정) K-방역으로 안정적 투자처 인식, 전세계 시장 84%와 연결된 FTA 네트워크, 높은 대외신용도 유지 등  
(부정)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,美中 기술패권 경쟁 심화,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 경향 등

#### 2. 향후계획

◆ 신산업, 첨단 소부장·R&D, 그린뉴딜 등 우리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투자를 적극 발굴·유치하여 “FDI 플러스 전환”을 위해 노력

- ① (전략적 타겟 설정) ‘소부장 2.0’, ‘한국판 뉴딜’ 등과 연계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,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先제안하는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를 유치
- ② (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) 既조성된 계획입지를 활용하여 기존 입지 혜택과 더불어 보조금·부지이용 특례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“첨단 투자지구” 신설하여 국내·외 첨단투자 유치 본격화
- ③ (지속적 투자유치 활동)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투자유치(IR) 플랫폼 구축 등 방식과 대상을 다양화하고, 주한상의·외투기업과 소통을 확대하여 투자 애로를 발굴·해소하는 등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추진

\* 1:1 맞춤형 투자상담, 주한상의·외투기업 간담회(수시), 지자체 정책협의회(반기별), 외국인투자주간(KW, 11월) 등

## IV. 세부동향(국가별 · 업종별 · 유형별)

### 1. 국가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#### ① 미국 : 신고 53.0억불(△22.5%), 도착 9.1억불(△34.5%)

- (업종별) 제조업 증가(19.8억불, +2.0%), 서비스업 감소(33.2억불, △32.1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50.9억불, △24.2%), M&A형 증가(2.1억불, +68.2%)

#### ② 유럽연합(영국포함) : 신고 47.2억불(△33.8%), 도착 37.8억불(△47.0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14.6억불, △56.0%), 서비스업 감소(31.3억불, △16.0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증가(26.8억불, +16.2%), M&A형 감소(20.4억불, △57.8%)

#### ③ 일본 : 신고 7.3억불(△49.1%), 도착 5.0억불(△57.9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2.1억불, △23.1%), 서비스업 감소(5.1억불, △55.4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5.4억불, △38.4%), M&A형 감소(1.9억불, △66.0%)

#### ④ 중화권 : 신고 54.6억불(+26.5%), 도착 29.4억불(+34.4%)

+

- (업종별) 제조업 증가(17.6억불, +37.0%), 서비스업 증가(36.4억불, +29.2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증가(39.3억불, +2.4%), M&A형 증가(15.3억불, +221.3%)

\* 중화권 : 중국, 홍콩, 싱가포르, 대만, 말레이시아

\*\* 중국 : 신고 19.9억불(+102.8%), 도착 2.2억불(+16.1%)

#### ⑤ 기타 : 신고 45.4억불(+25.9%), 도착 29.6억불(+101.6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5.6억불, △60.2%), 서비스업 증가(37.7억불, +71.4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증가(22.7억불, +4.6%), M&A형 증가(22.7억불, +57.7%)

## 2. 업종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### ① 제조업 : 신고 59.7억불(△27.4%), 도착 21.0억불(△57.4%)

- (증가업종) 전기·전자(10.9→16.5억불), 식품(5.5→9.3억불)
- (감소업종) 기계장비·의료정밀(11.6→8.5억불), 제지·목재(1.1→0.1억불)

### ② 서비스업 : 신고 143.5억불(△2.7%), 도착 86.6억불(+13.0%)

- (증가업종) 금융·보험(28.6→58.4억불), 운수·창고(물류)(4.6→6.3억불)
- (감소업종) 도·소매(유통)(34.7→12.0억불), 부동산(39.8→32.7억불)

## 3. 유형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### ① 그린필드형 : 신고 145.1억불(△8.8%), 도착 60.3억불(△8.2%)

- (업종별) 제조업 증가(46.2→51.3억불), 서비스업 감소(109.9→92.8억불)
  - (증가업종) 전기·전자(10.2→15.8억불), 식품(3.3→9.3억불)
  - (감소업종) 도·소매(유통)(25.4→11.4억불), 부동산(39.7→31.5억불)

### ② M&A형 : 신고 62.3억불(△16.0%), 도착 50.6억불(△25.5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36.0→8.4억불), 서비스업 증가(37.7→50.7억불)
  - (증가업종) 금융·보험(16.9→40.1억불), 전기·가스·환경정화·건설(0.4→3.2억불)
  - (감소업종) 화공(29.4→3.0억불), 도·소매(유통)(9.3→0.6억불). <끝>

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(☎ 044-203-40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